

잊지 못할 고향 광주... 그리움은 詩가 되어

김종석 시인 '비 내리면 슬픈 날 바람 불면 아픈 날' 펴내

광주시 광산동에서 태어나 1977년 캐나다로 이민 슬픔·고통·이별·후회... 5000여 편 시로 삶 위로



고 서걱거려야 했던 이방인의 애절한 심상들이 담겨 있다.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이자 이승철 시인은 그를 가리켜 “영원히 바람이고 싶어했던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시작(詩作)은 “자기 본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에 다름없다.

“사랑했었네”, “바다가 달려온다”, “나무”, “별들은 내 발걸음 함께 하며” 등 작품 대부분은 경계이로서 그가 감당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의 깊이를 보여준다. 생생한 감정의 편린은 읽는 이에게 더러 불편함을 준다. 한편으로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상흔이 것처럼 강고하다는 사실도 또렷하게 각인시킨다.

“모든 것에는 슬픔이나 아픔이 있다 고 봅니다. 혹은 그 고통이 감각적일지라도 그것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1955년 광주시 광산동에서 태어났다. 수창초등학교를 다니다 9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시골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시인은 지난 1977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40여 년 가까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시난고난한 삶을 살게 된다. 더욱이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시 창작은 그런 그에게 적잖은 위안이 되었다. “십대 시절부터 시를 썼어요. 지



광주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석 시인은 “몸은 타국에 있지만 마음은 광주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제공>

금까지 5000편 이상의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후 그는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입상돼 문단에 나온다. 2014년에는 계간 ‘시현실’로 등단하며 더 넓은 창작의 세계로 나아간다. 현재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시집 ‘나는, 내 소리를 읽었네’, ‘장미의 외출’을 펴냈다.

“유년기와 소년기를 빼면 고국에 머물렀던 시간은 5년 남짓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 교사이자 나중에 교장이 되셨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살았던 시간은 9살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시는 내면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만리 미국 땅에서 그가 쓴 시들은 고향을 떠난 세월만큼이나 큰

간극을 드러낸다.

시인인 문정영 계간 ‘시 산맥’ 대표의 하나의 “자서전”으로 평한다.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기질 수 있는 슬픔, 고통, 죽음, 이별, 후회, 반성의 시편들과 함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시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감성의 전달을 통하여 삶의 서사를 그렸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그에게 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있는 삶의 과정이다. 하나의 세계를 넘어 자신을 오롯이 드러내는 매개로 작용한다.

이장호 영화감독은 추천사에서 “시의 행간 속에서 읽어버린 영혼을, 그리움을, 두근거리는 설렘을 되찾게 해준 김종석 시인을 축복한다”고 말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촌산업단지의 적막한 밤 아프리카 리듬이 쏟아진다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낭만파티’ 30일 개막... 10월까지 행사

적막한 산업단지의 밤이 흥겨운 아프리카 리듬으로 채워진다. 30일(오후 6시30분~8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에서 ‘럭키소촌 낭만파티-별이 쏟아지는 밤’이 펼쳐진다.

오는 10월까지 매달 열리는 ‘럭키소촌 낭만파티’는 6개 주제로 아프리카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30일 개막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선율악기 고니와 타악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모닥불과 함께 아프리카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부대행사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그리 연주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출신의 세습음악가 아미두 발라니(Amidu Balani)가 맡는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가 연주에 맞춰 강렬하고 다 흥을 돋우는 무대를 선사한다. 산업단지 플라멩코 ‘럭키장터@소촌’도

함께 진행된다. 아가지기한 수공예 제품부터 떡거리, 커피 핸드드립 체험, 만들기 체험, 타로카드, 네일아트 등 시민 예술가 10팀이 참여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가 주최하고 소촌아트팩토리가 협력하는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3일~7월9일 전시 ‘컬러풀 아프리카’, 6월17일 ‘재즈가 흐르는 아프리카 아트전-보일락 들릴락’, 8월19일 아프리카 댄스파티 ‘Make Your Soul Free!’, 9월 16일 ‘디제잉과 함께하는 서아프리카 음악의 밤’이 이어진다. 10월21일에는 전체 행사를 하나로 묶는 파티 ‘Be Together, Be Happy’로 축제 문을 닫는다. 문의 062-960-368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소촌아트팩토리의 ‘럭키소촌 낭만파티’에 방문한 시민들이 아프리카 공예품을 살펴보고 있다. <소촌아트팩토리 제공>

사교육·입시지옥·등록금 없는 독일의 교육혁명

김택한 교수 ‘행복한 독일 교육 이야기’ 펴내

사교육이 없고, 명문대라는 대학서열도 없으며, 평생 공부하면서 행복한 직장생활과 함께 은퇴 이후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있는가?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교육혁명을 단행한 나라가 있는가?

위 질문에 답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3무(無) 국가다. 즉 사교육비가 없고, 입시지옥이 없으며 대학등록금까지 없다. 이 같은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4차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광주세계엔터테인먼트스틸별 추진위원장을 역임했던 독일전문가 김택한 교수는 독일 교육을 사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명을 역설한다. 김 교수가 최근 펴낸 ‘행복한 독일 교육 이야기’(자미산)는 교육 내용에 대한 혁신과 더불어 교육 철학과 초점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독일 교육의 이야기는 입시위주의 출세우기 교육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



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공부 방식보다는 ‘감정지능’ 같은 소통과 협업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적이 좋은 아이보다 성격이 나쁘지만 가능성이 있는 아이에게 눈길을 주게 된다. 학교는 아이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학교는 끝까지 담당하고 행복하다.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독일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융복합적 교육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할 만큼 독서와 취미활동, 여행과 스포츠가 결합한 교육을 실행한다고 덧붙인다. 실제 독일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고집하는 대신 ‘마이스터’, 다시 말해 장인의 길을 선택한다. 일과 교육을 병행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학교와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김 교수는 “스펙과 학벌이 아닌 몸과 마음이 행복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다시 교육 혁명을 고민할 때”라며 “독일 교육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혁명의 8대 공약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5월 음악회 ‘양림동에서 노래하다’

오늘 호남신대 예음홀

한달에 한번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열고 있는 사문화예술협회가 29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예음홀에서 5월 음악회를 연다.

‘양림동에서 노래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 작은 카페에서 관객들과 가깝게 호흡하며 음악회를 열어왔던 데서 벗어나 정식 공연장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기회이다.

소프라노 윤은주의 사회로 진행되는 연주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콜라보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이소정(사고과 저드슨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반주에 맞춰 테너 진철민(메릴랜드 타운슨 주립대학) 교수가 카르디올로의 ‘Core ‘n grato’를 들려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김기봉씨가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 등을 노래한다.

또 김준연씨의 반주에 맞춰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씨가 차이코프스키의 ‘소중했던 추억 중 멜로디’를 연주하며 로마 예술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옥 교수가 현제명의 ‘나를 깨는 처녀’ 등을 부른다. 문의 062-384-3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참숯가마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